

외국인 유학생의 관형절 실현 양상 연구

- 작문 자료를 중심으로 -

최보선*

|| 차례 ||

- I. 머리말
- II. 한국어 관형절
- III.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 IV. 분석 결과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관형절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중국 25명, 몽골 1명, 사우디아라비아 1명, 캄보디아 1명으로 모두 28명의 학습자에게서 얻은 작문 자료를 관계절, 동격절, 연계절, 명사적 관형절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관계절에서는 Keenan & Comrie의 접근가능성 위계(AH)와 비교해 보았는데 주어, 직접목적어, 간접목적어, 부사어 중에서 주어만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동격절은 많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완형형과 불구형의 형태를 고루 사용하였다. 연계절은 사용 양상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명사적 관형절은 가장 많이 나타난 항목으로서 외국인 학습자들이 가장 쉽게 사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한국어 관형절, 관형절, 관계절, 관계화, 한국어 교육

* 영남대학교 국제학부 강사

I. 머리말

여러 연구에서 밝힌 바 있듯이 한국어 초급 학습자의 중, 고급으로의 전환점, 고급스러운 한국어 사용 등은 관형절의 사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단순한 단문에서 출발하여 단문이 이어진 복문을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더 복합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배우게 된다. 이 때 사용되는 것이 관형절인데 이처럼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절 사용은 그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문법 지식을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하는 이, 듣는 이에게도 문장의 적절한 이해와 명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도 관형절은 관형사형 어미 학습과 함께 한국어 학습 초기부터 시작되고 중, 고급 수준으로 올라갈수록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 이상억(2001)에서는 1980년 이후에 출간된 외국인 학습자 및 교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22개 항목의 문법 항목을 분석하여 ‘한국어 규칙 및 제약의 기능 부담량’을 제시하였다. 이 결과에서 ‘명사구 보문과, 종속 접속화, 관계화’의 세 가지 항목이 각각 18.93%, 17.25%, 15.58%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외국인 대상 교재에서의 관형절의 출현과 중요도는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재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연구 중에서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관형절에 관한 연구¹⁾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해영(2004)에서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학부 이상의 과정에서 공부할 때 단순문이 아닌 관형절이 사용된 문장과 같은 복잡한 구조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은 한국어 교육에서 이들에게 도움을

1)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는 어학연수생인 한국어 학습자 또는 일반인들의 관형절을 다룬 급수에 따른 연구(민명숙 2010, 혁미평 2016, 김민아 2017, 김신영 2017 등)와 학부생 이상을 다룬 연구(이준호 2013, 이서형 2016, 홍윤기 외 2015 등)가 있다.

줄 만큼의 학습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김서형 외(2010)에서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일정한 단계가 지나면 확대된 문장(복합문)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복잡한 명제 간의 관계를 적절함과 경제성으로 표현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것은 자연스러운 고급 한국어 표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에서 수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²⁾의 작문 자료에서 관형절의 실현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 교육에서 관형절의 이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최근에 나오고 있으며 그 수가 많지 않다. 한국어 학습 교재나 수업 방향에 있어서도 이것이 명시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으므로 교수자와 학습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수자가 외국인 학습자를 가르칠 때 알아야 하는 관형절의 종류와 외국인 학습자가 많이 사용하고 많이 틀릴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다루어 수업 진행 및 학습자의 제2언어습득 과정의 이해, 피드백(feedback)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한국어 관형절

한국어 관형절은 일반적으로 머리명사³⁾가 관형절 안에서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관계관형절(이하 관계절, Relative clause)과 관형절 자체가 머리명사의 내용이 되는 동격관형절(이하 동격절, Appositive clause)로

2) 본고에서 지칭하는 ‘외국인 유학생’이란 한국어 언어 연수 과정을 끝내고 학부에 입학한 한국어 학습자를 가리킨다.

3) 머리명사(head noun)는 명사구, 중심명사, 중심어, 표제명사, 피수식명사, 핵심명사, 핵어명사, 형식명사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나눈다⁴⁾. 전통 국어 문법에서는 관계절과 동격절이 관형절로 함께 다루어졌으나 생성문법(Generative grammar) 이론이 국어에 도입되면서 관형절을 각각 나누게 되었다. 관형절이 반드시 주어와 서술어가 문장의 표층에 드러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내포문(embedding sentence) 속에 머리명사와 공지시적(co-reference)인 문장성분이 머리명사로 이동한 경우도 관형절로 취급한다(김기복 1999, 류운도 2001 등).

(1) 가. [햇불을 추켜든] 그들은 골짜기를 살살이 뒤졌다.

나. [충무공이 만든]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었다.

다. [내가 어제 책을 산] 서점은 바로 우리 집 옆에 있다.

(남기심 외, 2013:392)

(1가)는 머리명사인 ‘그들’이 수식절 안에서 주어로 기능하는 주어 관계절이고 ‘그들은 햇불을 추켜들었다’와 같이 재구할 수 있다. (1나)는 ‘거북선’이 수식절 안에서 목적어로 기능하는 목적어 관계절로서, ‘충무공이 거북선을 만들었다’로 재구할 수 있다. (1다)는 ‘서점’이 수식절 안에서 부사가 되어 ‘내가 어제 서점에서 책을 샀다’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수식절 안에서 공백(gap)으로 나타난 머리명사가 수식절 밖에 위치해 있을 때 이것을 관계절이라고 부를 수 있다.

(2) 가. 나는 [그가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 [그가 우리를 도와준] 일을 잊지 맙시다.

(남기심 외, 2013:391)

4) 남기심(2001), 남기심, 고영근(2013)에서는 ‘관계관형절’, ‘동격관형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익섭, 채완(1999)에서는 ‘관계절’, ‘보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는 동격절의 예로, 수식절에서 한 문장의 모든 성분을 다 갖추고 있다. 머리명사 ‘생각’과 ‘일’은 각각 수식절의 내용에 해당한다. (2가)는 문장 종결형에 ‘-(고 하)’는 붙은 관형절로 긴 관형절이라고 부르고 (2나)는 서술어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것으로 짧은 관형절이라고 부른다. 동격관형절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머리명사와만 함께 사용된다⁵⁾.

그리고 관계절이나 동격절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특수한 부류를 연계관형절(연계절)이라고 한다.

(3)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린다.

(이홍식, 1999:375)

(3)의 머리명사 ‘소리’는 ‘비가 오는’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 ‘비가 오는’은 사태이나 그 사태를 소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가 오는’은 ‘소리’의 내용이 아니고 적어도 ‘소리’를 유발하는 원인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은 관계절로도, 동격절로도 처리하기 힘들다. (3)과 같이 동격관형절의 머리명사와 동일한 내용을 갖지 않고 내용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다른 사태로 보문명사를 수식하는 종류의 관형절을 관계관형절과 동격관형절과 구분하여 이르는 것으로 장경희(1987)는 불구보문, 신효필(1996)은 의사 관계 구성, 이홍식(1999)은 비동격절, 김지은(2002:175)에서는 연계절이라고 불렀다.

5) 우형식(1987:180)에서는 완형동격절([+완형])에서, 불구동격절([-완형])에서, 둘 다 ([±완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머리명사를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완형]	믿음, 추측, 상상, 확인, 설명, 신고, 고소, 발표, 말, 증언, 반문, 논평, 예언, 대답...
[±완형]	약속, 정보, 사실, 약점, 이점, 죄목, 혐의, 전력, 태도, 보람, 이유, 구실, 역할, 느낌...
[-완형]	가능성, 개연성, 불상사, 경험, 기억, 동기, 다음, 가운데, 경우, 까닭, 과정, 사례, 경향...

(4) 가. (기준시가를 높였더니) [부동산 투기가 잠잠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나. [기준시가를 높이] 결과 부동산 투기가 잠잠해졌다.

(김지은, 2002:176)

(4가)와 (4나)에서 ‘결과’라는 머리명사가 똑같이 쓰였으나 (4가)는 수식절이 머리명사의 내용절이 되므로 동격절이고, 수식절이 머리명사의 내용절이 되지 못하나 필요한 성분으로 나타나는 (4나)는 연계절이다. 이처럼 어떤 머리명사는 사용 상황에 따라 동격절에도, 연계절에도 모두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의존명사(것, 줄, 지 등)를 취하는 형태인 명사적 관형절⁶⁾ 등의 종류로 나눈 연구도 있다.

(5) 가. [그가 실직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 사람은 거짓말 할] 줄을 모른다.

다. [나는 그 일에 대하여 어느] 바가 전혀 없다.

(김기복, 1999:83-84)

명사적 관형절이란 (5)의 예처럼 머리명사에 의존명사를 취하고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관형절을 말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절을 동격절로 보기도 하고(남기심 1973, 김기복 1999 등) 명사적 관형절로 보기도 하였으나(김형기 1965, 허웅 1983, 김민수 1989, 김인택 1997 등) 본 연구에서는 동격절이 아닌 명사적 관형절로 본다. (5가)는 문장의 종결형에 관형사형 어미인 ‘는’이 붙은 형태이고 (5나)와 (5다)는 용언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형태이므로 형태적으로 똑같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

6) 명사적 관형절은 명사절, 명사적 관계절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인 대상 교재에서는 이러한 형태가 같은 것으로 취급되므로 같이 묶어서 본다. 이와 같이 여러 연구⁷⁾에서 기존의 관형절의 개념을 특성과 의미를 새롭게 고려하여 세분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러 논의를 살펴본 후에 외국인들의 관형절 실현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Ⅲ.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장에서는 실제 외국인 학습자들의 실제 작문 자료를 분석하여 앞 장에서 다룬 네 개의 관형절의 종류로 나눈 후 각각 어떠한 양상을 드러내는 지 살펴보기로 한다.

1. 분석 대상

외국인 유학생의 관형절 실현 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학 강의에서 학문 목적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생성한 작문 자료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부 강의에서 수집하였다. 이 강의는 ‘학술적 글쓰기⁸⁾’라는 강의이며, 경북 소재의 한 대학교에서 2015년 2학기(9월-12월)에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작문 자료 수집 결과, 28명의 학습자⁹⁾에게서 각 한 편씩 28편의 작문 자료를 얻을

7) 신효필(1996)에 이어 최근 연구인 박형진(2016)에서도 관계절의 구조를 기준으로 하여 관계절과 비관계절로, 표제명사(머리명사)의 보충어와 부가어를 기준으로 보충어 관형사절, 부가어 관형사절로 나누어 이원적 체계로 소개한 바 있다.

8)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글쓰기의 유형과 글쓰기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일주일에 두 번 75분씩 진행되었다.

수 있었다. 작문 자료를 수집할 때 변수를 최대한으로 막기 위하여 한국어 사전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는 환경에서 자료를 수집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에게 이미 내재되어 있는 지식의 사용을 보고자 시험 상황에서의 작문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 강의의 마지막 기말시험에서 작문 자료를 수집하게 되었다¹⁰⁾. 본 연구에 사용된 작문 자료를 수집할 당시 문제해결형 논설문이 기말 시험의 장르로 예정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사전이나 책 등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60분간 800-1000자 정도의 분량으로 작문을 진행하였다. 시험 주제는 ‘대학생들의 낮은 독서량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으로 시험 당일에 공개되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 수집된 자료가 아니므로 학습자들이 관형절 사용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자료이다. 또한, 작문의 장르나 분량이 본 연구의 주제인 관형절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은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외국인 유학생의 관형절 실현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관찰을 주목적으로 한다. 물론 학습자 개인의 특성, 모국어 영향, 한국어 숙달도 등에 대한 더 많은 논의를 할 수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이미 학습자들이 한국어 학습을 하면서 내재화한 관형절 지식을 관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학습자의 국적 또는 한국어 숙달도, 성별 등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변인을 함께 다루지는 않으며 필요시에 추후의 연구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9) 학습자 28명의 국적은 중국 25명, 몽골 1명, 사우디아라비아 1명, 캄보디아 1명이며, 성별은 남자 11명, 여자 17명이다.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 기간은 8개월-3년까지이며 한국어교육원의 한국어 연수가 끝나고 1학년 1학기 본 강의를 듣거나 한국어에 대한 관심으로 본국에서 교양 강의로 한국어를 배운 학생, 전공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교환학생도 있었다.

10) 시험 종료 후 학습자들의 시험 자료가 필자의 연구에 어떻게 사용될 것이라고 구두로 알리고 자료 사용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

2. 분석 기준

본 절에서는 앞서 2장에서 설명한 네 종류의 관형절을 중심으로 학습자들의 글쓰기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6)은 학습자들의 작문 자료에서 얻은 내용으로 본 연구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분석할지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본다.

(6)¹¹⁾ 가. 관계절 : ① 현대 사회는 [능력이 강한] 사람이 필요하다.

② 인터넷을 사용하면 [좋아하는] 책을 다 받을 수 있지만.....

③ [지식을 쌓아야 하는] 대학 시절에 처하고 있는.....

나. 동격절 : [대학생들은 계획적으로 책을 읽어야 하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다. 연계절¹²⁾ : [대학생 6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달 평균 2.7권에 그쳤다.

라. 명사적 관형절 : ① 독서는 [책을 읽는] 것이다.

② [책을 많이 읽은 학생에게 상을 줄] 수 있다.

11) 본고에서 사용된 예문은 학습자 실제 자료에서 가지고 온 것이고 틀린 표현이나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띄어쓰기가 있더라도 이해하는 데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그대로 옮겨 썼다. 필요시에 학습자 실제 사용 자료 뒤에 괄호를 넣어 바른 단어를 표기하였다.

12) 본고에서 사용하는 ‘연계절’이란 김지은(2002)의 보문명사Ⅱ 중에서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학습 시에 ‘-(으)ㄴ 다음, -(으)ㄴ 후’ 등과 같이 덩이 표현으로 배우는 머리명사를 가진 절을 말한다.

<김지은(2002)의 보문명사Ⅱ>

가. 결과, 대가, 보람, 효과, 흔적, 후유증, 덩, 불똥, 여파, 징조, 기미...
나. 뒤, 다음, 가운데, 사이, 끝, 후...
다. 냄새, 소리, 표정, 연기, 게...

(6가①)의 머리명사 ‘사람’은 수식절 안에서 ‘사람이 능력이 강하다’와 같이 주어로 기능하므로 주어 관계절로 볼 수 있다. (6가②)의 머리명사 책은 ‘책을 좋아한다’와 같이 수식절 안에서 목적어로 나타나므로 목적어 관계절이다. (6가③)은 ‘대학시절에 지식을 쌓아야 한다’와 같이 머리명사 ‘대학 시절’이 부사어로 사용된다.

(7) [빨간] 장미를 한 송이 꺾었다.

(8) 가. [큰] 사람

나. [키가 큰] 사람

전통문법에서는 이 예문의 ‘빨갳다’가 ‘장미’를 수식하고 있어 주어가 생략된 관계절로 처리한다(남기심 외, 2013). Ozeki & Shirai(2007)에서도 동사 1어문과 형용사 1어문 모두를 분석 대상 범위로 정하고 있다. 연재훈(2012)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형용사나 동사의 관형형이 단독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에 대한 표현을 언급하였다. 그는 (8)의 각각의 ‘큰’을 다른 단어로 보기 어려우며 화용적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므로 모두 관형절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관형절의 사용을 볼 때 수식 부분이 형용사 1어문인 경우에 시제 표지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 제외하는 경우가 있으나¹³⁾ 본고에서는 자료 수집 시에 형용사 1어문, 동사 1어문을 모두 포함하였다. 이는 실제 외국인 학습자의 작문에서 관형절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 보기 위하여 제약을 가하지 않고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6나)의 수식절인 ‘대학생들은 계획적으로 책을 읽어야 한다’는 머리명사 ‘의식’의 내용절에 해당하므로 동격절이라고 볼 수 있다. (6다)는 머리명사 ‘결과’가 수식절

13) 관형절 안의 서술어가 형용사이면서 다른 문장 성분이 나타나지 않는 절을 제외한 연구로는 김창구(2010), 한송화(2015) 등이 있다.

안에서 공백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관계절로 볼 수 없다. 만약 이 머리명사를 수식절 안으로 넣으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6)' ① 결과는 대학생 6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주어로 넣음)
- ② 대학생 690명을 대상으로 결과를 조사하였다. (목적어로 넣음)
- ③ 대학생 690명을 대상으로 결과로 조사하였다. (부사어로 넣음)

형태상으로는 (6)'과 같이 나타날 수 있으나 머리명사 '결과'는 '대학생 6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에 후행해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세 개의 예문에 해당하는 수식절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대학생 6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은 작문 주제와 관련이 있는 '대학생들의 독서량'일 것이다. 그것에 대한 결과는 그것을 조사한 후의 내용으로 나타난 것이고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결과 그 자체를 조사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6다)는 연계절로 보아야 한다. (6라①)은 '-는 것'이 사용된 문장으로 관형사형 어미 '-는'과 의존명사 '것'으로 이루어진 형태이다. 앞서 밝힌 것처럼 외국인 학습자들은 이러한 형태를 덩이 형태로 학습하게 되고 실제 표현 영역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6라②)는 '(으)ㄴ 수 있다/없다'의 문형이 사용된 문장으로 관형사형 어미 '-ㄴ'과 의존명사 '수'가 함께 사용된 것이다. 이 역시 (6라①)과 같이 한 덩이 형태로 배우게 되는 문형이다. 물론 각각은 의존명사와 명사로 된 구성이라 동일 시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덩이 형태를 함께 학습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이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특별한 구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므로 명사적 관형절이라는 같은 항목으로 묶는다. 명사적 관형절의 머리명사는 그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수식절 안에 들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어 동격절로 처리하는 연구도 있으나 본고의 목적은

외국인이 사용하는 문법 실현 양상이므로 외국인 학습자들이 기학습한 내용을 고려하여 분석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교재에서 의존명사를 학습할 때에는 ‘-는 것, -(으)ㄴ 수 있다/없다, -(으)ㄴ/는 척’ 등과 같이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명사가 결합된 하나의 덩어리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학생들이 명사적 관형절의 형태를 사용할 때에는 문법 구조를 알고 사용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오히려 학습한 형태 그대로를 외워서 사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으)ㄴ 후, -(으)ㄴ 때, -(으)ㄴ 수 있다/없다’ 등과 같은 보통 다른 관형사형 어미 표현들과 함께 사용되는 표현들도 본고에서는 명사적 관형절로 처리한다. 한국어 교수 시에 보통 덩어리 형태를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이며, 관형사형 어미, 의존명사, 서술어 등으로 따로 떼어 가르치지 않는다. 시제나 품사에 따른 구별은 설명이 가능하나¹⁴⁾ 의미를 가지는 덩어리 형태는 그대로 학습하고 연습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명확한 성격으로 분류할 수 없는 절의 종류 중에서 의존명사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9) 가. [만두 빚은] 것을 먹었다.

나. [도둑이 도망 가는] 것을 잡았다.

(채희락, 2012:1046)

(9)에서 보는 예문들을 동격절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Kim 2002, Jo 2005, Kim 2008, 연재훈 2012 등) ‘것’이 수식절 안의 머리명사로 나타나므로 관계절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중의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것은 본래의 국어학적인 관점에서는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 본

14) 동생은 예쁜 책을 많이 한다, 학교에 가기 싫어서 자는 책을 했다.

고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의 관형절 실현 양상을 논할 때에는 실제 학습 상황, 실제 사용을 중심으로 다루기로 한다.

또한 앞서 밝힌 바 있듯이 여러 연구에서 이러한 형태의 절을 일반적인 관형절에서 따로 떼어 연구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한송화(2015:216)에서도 전형적인 관형절에서 한국어 교육에서 문법 형태로 범주화하고 있는 내용을 구분하여 분류하기도 하였다¹⁵⁾. 따라서 본고에서는 의존명사를 포함하고 있는 절과 특정한 관형사형 어미와 함께 사용되는 명사를 사용하는 절을 동격절로 보지 않고 명사적 관형절로 구분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IV.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3장을 기준으로 실제 외국인 학습자 작문을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그 내용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다.

15) 한송화에서는 관형절을 수식 기능의 관형절과 비수식 기능의 관형절로 나눈 바 있다.

ㄱ. 수식 기능 관형절 및 관형구

- a. 관계관형절(내가 좋아하는 음식)
- b. 동격관형절(한국과 가까워졌다는 생각)
- c. 관형구(그에 대한 이야기)

ㄴ. 비수식 기능 관형절

- a. 준명사형 관형절(축구 선수가 되는 것은 어렵다.)
- b. 문장연결형 관형절(도착하는 대로 전화 주세요.)
- c. 양태형 관형절(난 테니스를 칠 수 있다.)

1. 관형절 실현 양상

〈표 1〉 작문 자료 내용

문장 수	어절 수	관형절 수
676개	6,132개	685개

수집 결과, 문장 676개, 어절 6,132개, 그 중에서 관형절 685개를 얻을 수 있었다.

〈표 2〉 관형절 사용 빈도

관형절 종류	사용량(개)	사용률(%) ¹⁶⁾
관계절	245	35.8
동격절	62	9.1
연계절	26	3.8
명사적 관형절	352	51.4
	685개	100%

작문 자료에서 <표2>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관계절은 685개의 관형절 중에서 245개로 35.8%, 동격절은 62개로 9.1%, 연계절은 26개로 3.8%, 명사적 관형절은 352개로 51.4%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관계절은 머리명사가 수식절 안에서 어떠한 기능으로 나타나는지에 따라 더 분류할 수 있는데 수집된 관계절 실현 양상을 다루기에 앞서 관계절과 관련한 연구 먼저 살펴볼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Keenan & Comrie(1977)의 접근가능성 위계가설(Accessibility Hierarchy : AH)이다. 이 연구 및 가설은 관계절을 다루는 많은 연구에서 비교되어 결과를 분석하는 데에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 관계절에서 문법적인 기능과 관계화의 위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참고할 만하다. 접근가능성 위계가설이란 관계절에서 머

16) 본 연구의 모든 백분율은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리명사의 문법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관계화에 대한 형태적 제약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50여 개의 언어로 표본 조사를 하고 이후 더 많은 언어를 연구하여 언어권별로 접근 가능성에 대한 일반화를 제시하였다. 결국 접근가능성 위계가설은 특정한 언어가 아닌 모든 언어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특징이라는 것이다(고은정 2013 재인용).

〈표 3〉 접근가능성 위계

SU	DO	IO	OBL	GEN	OCOMP
주어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사격보어	소유격	비교급의 목적어

접근가능성 위계가설은 <표 3>과 같이 나타나는데 왼쪽으로 향할수록 습득의 용이성이 높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는 (10)과 같이 앞의 네 자리에서만 관계절을 만들 수 있다.

(10) 기본 문장 : 존이 메리에게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쳤다.

가. 주어 : [메리에게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친] 존

나. 직접목적어 : [존이 메리에게 대학에서 가르친] 영어

다. 간접목적어 : [존이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친] 메리

라. 사격보어 : [존이 메리에게 영어를 가르친] 대학

(연재훈, 2012:426)

또한, O'Grady et al.(2001)과 O'Grady et al.(2003)에서는 한국어를 제 2언어로 배우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 관형절 습득 실험을 통하여, 목적어 관계절보다 주어 관계절의 정확도가 높음을 밝혔다(엄진숙, 최동주 2009 재인용). Jeon & Kim(2007)에서도 관형절을 연구하였는데 머

리명사가 없는(headless) 관계절, 머리명사가 내부에 있는(head-internal), 머리명사가 외부에 있는(head-external) 관계절의 순으로 습득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외국인 학습자들의 글쓰기에서 추출한 관계절의 종류는 <표 4>와 같다.

〈표 4〉 관계절 실현 양상 1

머리명사의 관계화 양상	사용량(개)	사용률(%)
주어	190	77.6
목적어	14	5.7
부사어	41	16.7
	245	100

그리고 본 연구에서 수집된 관계절의 종류를 Keenan & Comrie(1977)의 연구와 함께 살펴보기 위하여 <표 5>와 같이 다시 나누었다. 한국어의 관계절과 영어의 관계절의 성격이 각 언어의 특성상 일대일로 정확하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특히 영어, 유럽어의 간접목적어와 사격보어가 한국어에서는 부사어로 나타나므로 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표 5〉 관계절 실현 양상 2

머리명사의 관계화 양상	사용량(개)	사용률(%)
주어	190	77.6
직접목적어	14	5.7
간접목적어	4	1.6
부사어	37	15.1
	245	100

(11) 가. J'ai fait écrire une lettre au directeur par Henriette.

'I made Henriette write a letter to the director.'

(Keenan & Comrie, 1977:95)

나. John put the money in the chest.

다. John lives in Chicago.

라. John left on that day.

(Keenan & Comrie, 1977:66)

(11가)에서는 SU(je), DO(une lettre), IO(au directeur), OBL(par Henriette)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다. ‘나는 Henriette에게(또는 Henriette로 하여금) 관리자에게 편지를 쓰도록 하였다.’ 정도로 번역되는데 프랑스어 구조와 한국어 구조가 달라 번역이 똑같지 않다. 그러나 문장 안에서 기능하는 성분으로 각각 주어, 직접목적어, 간접목적어, 부사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1나-라)의 예문들에서 기울어진 단어들은 한국어로 ‘가슴에’, ‘시카고에’, ‘그 날에’ 등으로 각각 위치, 장소, 시간 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로서 Keenan & Comrie(1977)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OBL(사격보어)로 간주하였다. 언어권에 따라 사격보어의 기준은 다른데 본고에서는 한국어 부사어를 간접목적어(한국어의 한정된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인 ‘에, 에게’ 등이 붙은 부사어)와 간접목적어를 제외한 부사어(‘에, 에게’ 등이 붙은 부사어를 제외한 모든 부사어)로 나누었다¹⁷⁾. 그러나 차후에 사격보어의 기준을 세밀하게 관찰한 후에 다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결과, 주어, 부사어, 직접목적어, 간접목적어 순으로 관계화가 나타났다. 사용량으로 봤을 때에는 주어가 다른 두 항목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보였다. 그러나 190개로 보인 주어 관계절에서 형용사 1어문이 147개로 주어 관계절에서 무려 77.4%로 나타났다.

17) 조용준(2012)은 한국어에서는 간접목적어의 지위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간접목적어와 사격보어를 따로 나누어 살펴보지 않는다고 하여, 주어, 직접목적어, 사격어로 분류하여 연구하기도 하였다.

(12) 가. 그러나 [이상한] 일이 나타나고 있다.

나. 독서량이 낮으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

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독서하는] 사람에 비해서…….

라. 이런 것 때문에 [책을 읽는] 학생이 적다.

마. e-book이나 사이트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획득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12가-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이 이상하다’와 ‘문화가 다양하다’처럼 시제 표지가 없이, 형용사가 머리명사를 단순히 수식하는 형태가 주어 관계절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초급에서부터 ‘재미 있는 영화, 맛있는 음식, 좋은 친구’ 등과 같이 명사를 수식하는 표현을 함께 배워 그것을 한 단어로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특히 학습자들의 자료에서 ‘많은, 중요한, 좋은’ 등의 형용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형용사를 수식어로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2다-마)의 ‘사람이 독서한다’, ‘학생이 책을 읽는다’, ‘사람이 메시지를 획득한다’ 등과 같이 수식절 안의 서술어가 동사이고 시제를 나타내며 주어와 어울리는 형태가 적은 분포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13) 가.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대부분 [알고 싶은] 지식을 다 찾을 수 있다.

나. [1, 2학년 대학생 대학교에서 들고 있는] 수업이 대부분 전공기초(기초)이다.

다. 인터넷의 보급이나 전자제품의 발전으로 인해 [종이로 만든] 전통 서적 대신...

(13가-다)의 예문은 머리명사가 수식절 안에서 목적으로 기능하는 경우

이다. ‘(대학생들은) 지식을 알고 싶(어)한다’, ‘1, 2학년 대학생들이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 ‘(사람들이) 전통서적을 종이로 만들었다’ 등과 같이 머리명사가 수식절 안에서 목적으로 사용된 것들이다.

(14) 가. 서점을 자주 가고 [관심이 있는] 책을 선택해야 한다.

나. 대부분 [대학생은 쉬는] 시간에서 외출하기를 좋아한다.

다. [책을 읽은] 경기를 통해서 선물도 받을 수 있다.

라. 학생들 이 수업이 선택하고 [책 읽은] 숙제 있으면 좋다.

머리명사가 수식절 안에서 부사어로 기능하는 예문은 (14)이다. 부사어로 사용된 것들 중에 각각의 수식 기능이 달랐는데 부사어 관계절 40개 중에서 영어의 간접목적어에 해당하는 ‘대상’을 제외하고 시간(22개), 장소(12개), 자격(1개), 방법/수단(1개), 출처(1개)로 나타났다. (14가)는 ‘책에 관심이 있다’로 나타나고 대상을 나타내며 간접목적어에 해당한다. (14나-라)는 각각 ‘대학생은 (어떤) 시간에 쉰다’, ‘경기에서 책을 읽는다’, ‘숙제로 책을 읽는다’와 같이 재구할 수 있는데 보통 한국어 조사 중에서 각각 시간, 장소, 방법/수단 등에 해당하는 ‘에’, ‘에서’, ‘-(으)로’로 대응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은 본 연구에서 부사어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본 연구의 결과와 Keenan & Comrie(1977)의 결과가 주어를 제외하고는 일치하지 않았다. 보통 접근가능성 위계가설을 다룬 연구들은 주어와 직접목적어까지를 다룬 것들이 많다. 따라서 간접목적어와 자격보어에 관해 다룬 것들을 많지 않으므로 다양한 비교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한국어에는 다양한 부사어가 존재하므로 이 부사어의 사용이 외국인 학습자들의 작문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었다고 본다. 특히 시간을 나타내는 ‘에’와 ‘장소’를 나타내는 ‘에서’의 사용이 가장 많았는데 이러한 것들

은 조금 때부터 배웠으며 형태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어렵지 않아 빈번한 사용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에 다양한 부사어가 많기 때문에, 단지 이러한 이유만으로 Keenan & Comrie(1977)의 연구 결과가 다르다고 단정 지어서 말하기도 어렵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덧붙여 본고에서 수집된 자료는 28명이라는 일반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빈약한 분석 대상이나 수집된 자료의 범주 안에서 결과를 분석했을 때 이 가설과 비교하여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어떤 유형을 보이는지 고찰해볼 수 있다고 여겨졌다. 그리고 이 가설은 관계화를 하는 명사(구)가 머리명사가 될 때 해당 언어 직관에 더 부합한다는 뜻이며 그것이 사용빈도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도 단순히 비교로써 다를 뿐이고 그들의 연구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밝힌다.

2. 관형절 오류 양상

다음으로 관계절의 종류에 따른 오류율과 오류 형태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관계절 오류율

관계절 종류	사용량(개)	오류량(개)	관계절 오류율(%) ¹⁸⁾	전체 오류율(%) ¹⁹⁾
주어	190	9	4.7	28.1
직접목적어	14	7	50	21.9
간접목적어	4	0	0	0
부사어	37	16	43.2	50
전체	245	32	13 ²⁰⁾	100

18) 각각의 관계절 안에서 나타난 오류를 비율로 계산한 것이다.

(예) 주어 : $9 \times 100 / 190 = 4.7$.

19) 전체 오류 개수인 32개에서 각각 나타난 오류를 비율로 계산한 것이다.

주어 관계절의 오류는 총 개수 190개 중에서 9개만이 확실하게 틀렸다고 볼 수 있는 오류를 보였다.

(15) 가. 앞으로 나라가 많은 [재능하는] 사람이 필요하면…….

나. 대학생들은 [앞으로 자기의 꿈이나 취직, 결혼을 위해 많이 생각해야 하다는] 사람이다.

다. 현대사회에서 [신앙없는] 사람이 많다.

라. 책을 읽은 것은 습관을 변화하면 [강하는] 수단을 취소할 수 있다.

(15가)에서는 ‘재능’이라는 단어를 ‘재능이 있다’와 같이 사용해야 하나 ‘하다’ 서술어를 붙여 ‘재능하다’라는 단어로 사용하였다. ‘재미있다, 멋있다’ 등과 같이 체언 뒤에 서술어를 붙여 단어를 사용하려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5나)에서는 머리명사 사람을 수식하기 위해 문장의 완성된 형태를 사용하였다. ‘사람’은 동격절과 같이 앞의 내용절에 해당하는 머리명사가 아니라고 생각되므로 이러한 완형의 형태가 필요 없다. (15다)는 ‘신앙’이라는 체언 뒤에 ‘없다’를 붙여 한 단어처럼 사용하였는데 이때의 ‘없다’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이다. 그러나 한국어의 ‘있다, 없다’는 형용사이나 동사와 같이 변화하므로 ‘신앙(이) 없는’이 되어야 한다. (15라)는 형용사인 ‘강하다’에 동사의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는’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주어 관계절에서 보인 오류는 문장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품사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생긴 것들이 많았다.

(16) 가. 사실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한] 문화지식, 생각, 관념이 더 중요하다.

나. 대학생들의 독서량 낮은 것 대한 문제 해결하면 [우리 해야 한]

20) 이 오류율은 관계절 245개 중에서 32개로 나타난 오류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일이 많다.

다. [1, 2학년 대학생 대학교에서 듣고 있는] 수업이 대부분 전공기조이다.

라. 책을 읽으면 [황금으로 만드는] 집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목적어 관계절의 오류는 14개 중에서 5개가 나타났는데 (16)과 같다. (16가)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문화지식, 생각, 관념을 공부한다’와 같이 관계화가 되었을 때 이 문장은 일반적인 시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아 수식절 안의 서술어는 ‘공부하는’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장이 사용된 앞뒤 문장에서도 ‘공부한’이라는 과거보다는 일반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공부하는’이 적절하게 보였다. (16나)는 대학생들의 독서량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와 같이 관계화한다고 한다면 ‘해야 할’이 더 적절할 것이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면 미래 시제를 사용하는 것이 옳바르다. (16다)는 ‘듣다’의 불규칙형을 잘못 이해한 경우라고 보인다. ‘듣다’는 모음 앞에서 받침 ㄷ이 ㄹ로 변화하는 단어이므로 ‘듣고 있는’으로 써야 할 것이다. (16라)는 ‘황금으로 집을 만들었다’로 나타낼 수 있고 수식절 안의 서술어는 과거가 되어야 한다. 주어 관계절과 같이 목적어 관계절에서도 수식절 안의 시제와 관련된 오류가 많이 보였음을 알 수 있다.

(17) 가. [독서가 필요한] 시간적이나 마음의 여유가 없다.

나. 또한 지금은 [학생들이 놀하는] 장소 많이 있어서…….

다. 대학생들은 매우 바빠서 [책을 읽은] 시간이 없다.

라. 학생들이 이 수업이 선택하고 [책 읽은] 숙제 있으면 좋다.

마. 예전에 [대학생은 독서한] 시간이 많고 [지금 대학생은 컴퓨터와 핸드폰을 놓은] 시간이 많다.

‘에, 에게’와 같은 간접목적어에서는 출현빈도가 지극히 적기도 했으나 오류가 보이지 않았고 직접목적어의 오류율은 사용률만큼이나 높았다. (17가)는 ‘독서가 필요한 시간’과 같은 명사가 나타나야 하는데 명사로도 쓰이나 관형사로도 쓰이는 ‘시간적’과 함께 나타나 어색하게 보인다. 그리고 이 ‘시간적’의 의미가 확실하지 않아 수식의 범위가 불확실하다. 수식절이 수식하는 머리명사가 ‘[독서가 필요한] 시간’인지 ‘[[독서가 필요한] [시간적, 정신적인]] 여유’인지 불명확해 보인다. (17나)는 ‘놀다’에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는’이 붙고 ‘ㄹ 탈락’ 현상으로 ‘노는’이 되어야 하는데 형태적으로 잘못 사용이 된 경우이다. (17다)는 앞에서 본 여러 예문과 마찬가지로 시제가 잘못 사용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이 시간이 없어 책을 읽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예정’을 나타내는 미래 시제를 사용하여 ‘책을 읽을’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17라)도 (17다)와 마찬가지로 시제가 잘못 사용이 된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책을 읽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현재 시제가 와야 할 것이다. (17마)는 문장이 두 개 연결된 연결문인데 이것 또한 시제가 다르게 사용되었다. 앞 문장은 과거의 상황을 나타내므로 절대 시제가 과거가 되고 수식절은 ‘대학생이 독서한다’와 같이 현재로서 상대 시제가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뒤 문장은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므로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가 모두 현재 시제가 와야 한다. 따라서 ‘예전의 [대학생은 독서하는] 시간이 많았고 [지금 대학생은 컴퓨터와 핸드폰으로 노는] 시간이 많다’ 정도가 되어야 한다.

결국 관계절에서의 오류율은 거의 품사나 시제와 관련된 것들이고 이것은 외국인 학습자들의 관계절 습득 및 학습에서 강조해서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 보인다. 김서형(2008)의 연구에서도 기존 한국어 교육에서는 문장의 접속이나 내포라는 관점을 소홀히 다루고 연결어미의 의미 기능을 전달하거나 관용구처럼 하나의 의미 단위로 제시하는 형태론적 수업에 주력하

는 바람에 학습자가 확대문의 문장 구성 능력을 제대로 갖추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형태뿐만 아니라 주절과 종속절에서의 시제나 품사에 따라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8) 가. 중국에서 [책에서 황금옥이 있다]는 말이 있다.

나. 책을 읽으면 [황금으로 만드는 집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 [인터넷에 있는 것은 책 대신 읽다]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

라.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의 시야를 넓게 하는] 역할을 한다.

마. [집에서 조용하게 책을 읽는] 여유가 없다.

바. [면적관(면적관)이 평소 몇 권 책을 읽는다는] 문제를 묻는 경우도 있다.

(18)의 예들은 동격절에 관한 것들이다. 동격절의 머리명사는 수식절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완전한 문장을 포함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완형형과 불구형으로 나눌 수 있다²¹⁾. 학습자들의 작문에서 완형형과 불구형이 골고루 나타났는데 오류를 가지는 것들이 몇 있었다.

〈표 7〉 동격절 사용 및 오류

종류	사용량(개)	오류 개수(개)	오류율(%)
동격절	62	14	22.6

(18다)는 ‘인터넷에 있는 것을 책 대신 읽는다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와 같이 ‘읽는다고 하는’이 줄어든 ‘읽는다는’으로 써야 하나 동사의 기본형으

21) 완형형은 ‘(-고 하)는’이 들어 있는 것이고 불구형은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로 끝나는 것을 말한다. 앞의 것을 긴 관형절, 뒤의 것을 짧은 관형절이라고 부를 수도 있으며 각각 ‘나는 그가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내가 직접 그를 만난 기억이 없다’를 예로 들 수 있다(남기심 외, 2013:391).

로 쓴 오류가 보이는 것들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동격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앞의 수식절의 서술어의 품사나 시제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18마)는 ‘(학생들이) 집에서 조용하게 책을 읽을 여유가 없다’로 나타나는 예문이다. 주절의 현재 시제를 내포절인 수식절 안에서까지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색하게 느껴지며 상대시제를 잘못 이해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18바)는 면접관이 구직자에게 평소 몇 권의 책을 읽느냐고 묻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프로 완형형의 형태가 서술형이 아닌 의문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읽느냐고 하는’ 또는 ‘읽느냐는’의 형태가 와야 한다.

다음으로, 동격절에서 사용된 머리명사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것들이 ‘경우, 습관, 의미, 문제, 능력’ 등이었고 그 외로 ‘말, 뜻, 방식, 기회, 관심, 마음, 생각, 방법’ 등이었다. 수식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수식절에 어울리는 머리명사를 잘 사용하고 있는 듯하다.

(19) 가. [한국 대학생 690명을 조사한] 결과는 한 달 평균 2.7권에 그쳤다.

나. [대학생들의 독서량이 낮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다. [독서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원인은 개이(개인)의 습관이 있고..

앞서 2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연계절은 관계절에도, 동격절에도 넣을 수 없는 특수한 절을 말한다. (19)의 머리명사인 ‘결과, 이유, 원인’ 등은 앞의 수식절에 포함될 수도 없고 수식절 자체가 머리명사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는 앞의 수식절의 내용인 ‘한국 대학생 690명을 조사한’ 후에 나타나는 것에 해당하고, ‘이유’는 ‘대학생들의 독서량이 낮은’ ‘어떠한 다른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며, ‘원인’도 ‘이유’와 마찬가지로 ‘다른 어떠한 것’ 때문에 ‘독서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학습자 자료에서 연계절의 머리명사로 ‘결과’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으로 ‘이유’가 사용되었으며 그 외의 것은 보이지 않았다. 연계절은 한국어 관형절의 독특한 특질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계속 연구되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20) 가. [스마트폰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데 독서 필요없다.

나.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을] 것 같다.

다. [책을 보고 싶으면 하나 하나 살] 뿐만 아니라...

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학원을 간다.

마. 또는 [정부가 경비를 지원한] 후에...

(20)은 명사적 관형절의 예로 각각 ‘-(으)ㄴ 수 있다/없다’, ‘-(으)ㄴ 것 같다’, ‘-(으)ㄴ 뿐만 아니라’, ‘-(으)ㄴ 때’, ‘-(으)ㄴ 후(에)’의 형태로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교재에서 하나의 덩이 형태로 제시된다. 따라서 외국인 학습자들은 이 형태를 쪼개어 이해한다기보다 한 개의 표현처럼 굳은 형태를 사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표 8〉 명사적 관형절 고빈도 형태

종류	사용량 (개)	사용률 (%)	오류량 (개)	오류율 (%)
-(으)ㄴ 수 있다/없다	138	43.4	0	0
(형)-(으)ㄴ 것	51	16.0	4	7.8
-는 것	50	15.7	1	2
-(으)ㄴ 때	34	10.7	2	5.9
(형, 동)-(으)ㄴ 것	29	9.1	0	0
(동)-(으)ㄴ 것	16	5.0	15	93.8
	318	100		

분석 결과, 학습자 작문에서 나타난 명사적 관형절의 개수는 모두 352개

인데 이 중에서 <표 8>에 나타난 6개 고빈도 표현이 318개로 전체의 90%를 차지하였다. ‘-(으)ㄴ 수 있다/없다’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으로 형용사의 ‘-(으)ㄴ 것’, 동사의 ‘-는 것’, ‘-(으)ㄴ 때’, 형용사와 동사의 미래, 추측에 사용되는 ‘-(으)ㄴ 것’, 동사 과거를 나타내는 ‘-(으)ㄴ 것’의 순서대로 나타났다. ‘-(으)ㄴ 수 있다/없다’는 초급 교재에서부터 제시되는 표현으로 능력과 가능성의 유무를 나타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고 의미나 형태가 복잡하지 않아 작문 자료에서도 많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난 ‘것’ 표현들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동사나 형용사를 명사형으로 바꿀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으로 초급 교재에서부터 제시되므로 사용 빈도가 높은 편이었다. 물론 이러한 덩이 형태를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학습자들의 글쓰기의 전체적 인상은 다른 ‘고급스러운’ 한국어 글쓰기를 구사하는 학생들과 비교가 되고²²⁾ 한국어 학습 기간이 짧거나 중, 고급 이상의 한국어 실력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서희정(2009)의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그는 6종 33권의 한국어교재에서 199개 복합형식의 사용 빈도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도 ‘-(으)ㄴ 수 있다/없다’가 사용빈도 1450회, 사용비율 9.824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ㄴ 때(이다)’가 사용빈도 660회, 4.47185%로 7위, ‘-ㄴ 것이다’가 사용빈도 657회, 사용비율 4.45152%로 8위, ‘-ㄴ/는/ㄴ 것 같다’가 사용빈도 409회, 사용비율 2.77119%로 10위, ‘-ㄴ/는 것이다’가 사용빈도 282회, 사용비율 1.91070%로 15위로 나타났다. 이 표현들 모두 199개 중에서 최상위권 순위에 속하며 1급과 2급부터

22) 형용사나 동사를 명사로 만들 때에는 ‘-(으)ㄴ’, ‘기’ 등의 다양한 형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위의 덩이 형태를 많이 사용하는 학습자들의 작문에는 다양한 표현이 나타나지 않았다.

제시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와 비교해서, 관형사형 어미가 들어 있지 않은 복합형식을 제외하면 ‘-(으)ㄴ 수 있다/없다’, ‘-ㄴ 때(이다)’, ‘-ㄴ 것이다’, ‘-ㄴ/는/ㄴ 것 같다’, ‘-ㄴ/는 것이다’의 순으로 제시됨을 알 수 있다. 물론 복합형식 안에서의 관형사형 어미가 들어 있는 형태를 따로 떼었을 때 결과가 똑같다고 볼 수는 없으나 외국인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는 데에서 비교가 될 만하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학습자의 작문 자료에서 추출한 관형절 예문을 각각 분석하고 오류의 형태를 살펴보았다. 기존 한국어 교육 논문에서 관계절을 분류할 때 명시적으로 보기 쉬운 주어 관계화와 직접목적어 관계화만을 다룬 논문들이 많았고 실제 예문과 연구자의 자료 분석 기준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연구들이 있었으나 본 연구는 관형절의 종류를 더 자세하게 나누려고 노력한 점과 실제 자료의 예문을 보여주고 해석하려고 노력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리고 다음은 본 연구에서 살펴본 외국인 유학생의 관형절 사용 양상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다.

첫째, 관계절 분석에서는 학습자 작문 자료를 Keenan & Comrie(1977)의 접근가능성 위계가설과 비교하기 위하여 주어, 직접목적어(을/를), 간접목적어(대상의 에, 에게), 부사어(대상의 에, 에게를 제외한 모든 부사어)의 네 종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위 가설과 비교했을 때, 주어를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어관계화의 오류에는 형용사와 동사의 품사를 잘 구분하지 못하여 나타난 것이 많았고 직접목적어 관계화에서는 수식절의 시제 오류가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동격절의 사용량은 그리 많지 않았으나 완형형과 불구형의 형태를 고루 사용하고 적절한 머리명사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연계절은 여전히 더 연구되어야 하는 부분으로서, 외국인 학습자들의 교재 등에서 따로 다루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현 양상이 적다는 것을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연계절의 머리명사는 ‘결과’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유’도 나타났으나 다른 것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명사적 관형절은 관형절 사용 중에서 압도적인 비율을 나타내는 항목으로서, 초급에서부터 덩어리 형태를 학습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가장 쉽게 사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으)ㄴ 수 있다/없다’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형용사의 ‘-(으)ㄴ 것’, 동사의 ‘-는 것’, ‘-(으)ㄴ 때’, 형용사와 동사의 미래, 추측에 사용되는 ‘-(으)ㄴ 것’, 동사 과거를 나타내는 ‘-(으)ㄴ 것’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한국어 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고급스러운’ 한국어를 구사하려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절의 개념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한다. 비록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외국인 유학생에게 명시적으로 절의 개념을 가르치거나 각각을 비교하지는 않으나 명사적 관형절과 같이 덩어리 형태로 제시하거나 동격관형절의 경우 완형형과 보문형의 머리명사를 각각 묶어서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것과 같은 교수법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학습자들이 생성하는 말하기 및 작문 자료에서 관형절과 관련된 오류가 보이거나 설명이 필요할 때에 교수자가 이러한 개념을 인지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매우 당연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이 생성하는 다양한 자료에서 그들이 생성한 예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도 생각해야 한다.

본 연구는 28명의 적은 수를 대상으로 하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고

전체적이고 간략하게 관형절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세밀하고 좀 더 분석적인 연구를 하지 못했다는 점을 한계점으로 가진다. 또한 앞으로 학문 목적 뿐만 아니라 일반 목적, 특수 목적 등 한국어를 다양한 목적으로 배우는 학습자들의 여러 자료에서도 관형절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볼 수 있으며 외국인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관형절의 사용과 그 의의를 찾고 그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외국인 학습자의 작문 자료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자료의 양과 분석 방법이 단일하여 빈약함을 가진다. 따라서 이 외에도 목표 문법 항목을 유도한 실험이나 관형절 추출에 사용된 선행 연구들의 실험 방법 등의 여러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제기된다.

【참고문헌】

- 김기복, 『국어의 관형어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 김민수, 『국어문법론』, 일조각, 1989.
- 김민아, 『한국어 동격 관형절 교육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 김서형, 『한국어 내포문의 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8, pp.129-141.
- 김서형 · 홍종선, 『관형사형 어미 ‘-는’에 대하여』, 문법교육 13권, 한국문법교육학회, 2010, pp.115-136.
- 김신영, 『L2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산출을 통해 본 관계절 사용 양상 - 복잡성, 정확성, 유창성을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 김인택, 『한국어 이름 마디의 문법』, 세종출판사, 1997.
- 김지은, 『관형절의 한 유형에 대한 연구』, 애산학보 27권, 애산학회, 2002, pp.157-185.
- 김창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계절 습득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 김형기, 『“국민의 할바”라는 “국민의”는 과연 주어인가?: 우리말의 관형어에 대한 일고』, 논문집 4권, 충남대학교, 1965, pp.1-20.
- 남기심, 『국어완형보문법연구』, 한국학연구총서 제1집, 계명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1973.
- 남기심, 『현대 국어 통사론』, 태학사, 2001.
- 남기심 · 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제3판, 탑출판사, 2013.
- 류운도, 『국어의 관형절 분석과 지도 방법』,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 박형진, 『한국어 관형사절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 서희정, 『한국어교육을 위한 복합형식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 신효필, 『한국어 관계구문의 통사와 의미구조 : 통합문법적 접근』, 태학사, 1996.
- 엄진숙 · 최동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요” 습득 양상』, 이중언어학 41권, 2009,

pp.229-269.

- 연재훈, 「유형론적 관점의 한국어 관계절 연구」, 국어학 63권, 2012, pp.413-457.
- 우형식, 「국어의 관형절과 핵심명사」, 원우론집 15권 1호, 1987, pp.143-189.
- 이상익, 『계량국어학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 이서형, 「한국어 학습자의 복합문에 나타난 시제 사용 양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 이익섭·채 완, 『국어문법론 강의』, 학연사, 1999.
- 이준호, 「한국어 명사구 보문절의 교육 연구 - 교재 분석 및 학습자 오류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어 교육 24권 3호, 2013, pp.31-52.
- 이혜영, 「학문 목적 한국어 교과과정 설계 연구」, 한국어교육 15-1권, 국제한국어교육 학회, 2004, pp.137-164.
- 이홍식, 「명사구 보문」, 국어학 33권, 1999, pp.367-398.
- 장경희, 『현대국어의 양태범주 연구』, 탑출판사, 1987.
- 조용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관형화 습득 연구 -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 겨레어문학 49권, 겨레어문학회, 2012, pp.353-386.
- 채희락, 「한국어에 과연 관계절이 존재 하는가 - 분사절 분석 -」, 언어 37권 4호, 2012, pp.1043-1065.
- 한송화,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절과 관형사형 어미 사용 양상 연구」, 문법 교육 24호, 한국문법교육학회, 2015, pp.211-243.
- 허 응, 『국어학』, 샘문화사, 1983.
- 혁미평,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형사절 내포문의 교육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 홍윤기·유 호, 「학부 외국인 유학생의 관형사절 사용 능력 연구 - 중국인 유학생의 글쓰기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 인문연구 74호, 2015, pp.177-202.
- Jeon, K. S., Kim, H. Y., Development of Relativization in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The Noun Phrase Accessibility Hierarchy in Head-Internal and Head-External Relative Clause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Vol.29 No.2, 2007, pp.253-276.
- Jo, Mi-Jeung, The Structure of Non-Regular Relatives and the Correlation Between Tensed Clause and CP, 언어(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2005, pp.195-222.

- Keenan & Comrie, Noun phrase accessibility and universal grammar, *Linguistic Inquiry* Vol.8, 1977, pp.63-99.
- Kim, M. J., Relevance of Grammar and Pragmatics to the Relevancy Condition, *語學研究(Language research)*, Vol.44 No.1,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구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2008, pp.95-120.
- Kim, Yong-Beom, Relevancy in Internally Headed Relative Clauses in Korean, *언어학* 27권, 2002, pp.21-43.
- O'Grady William Lee, Choo Miseon, Miho, The Acquisition of Relative Clauses by Heritage and Non-Heritage Learners of Korean as a Second Language : A Comparative Study 한국계 비한국계 학습자 비교 연구 =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의 관계절 습득, *한국어 교육* Vol.12 No.2, 2001, pp.283-294.
- O'Grady. W., Lee. M., Choo. M., A Subject-Object Asymmetry in the Acquisition of Relative Clauses in Korean as a Second Language,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Vol.25 No.3, 2003, pp.433-448.
- Ozeki & Shirai, Does the Noun Phrase Accessibility Hierarchy Predict the Difficulty Order in the Acquisition of Japanese Relative Clause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Vol.29 No.2, 2007, pp.169-196.

Abstract

A Study on the aspects of the Korean adnominal clause
of overseas students
- focused on using writing -

Choi, Bo-Se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spects of the adnominal clause of 28 overseas students who were studying with academic purposes in Korea. They were made up of 25 Chinese students, 1 Mongolian student, 1 Saudi Arabian student and 1 Cambodian student.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with the student's production of words and writing, which were the written data. The data were classified to the categories which showed examples of a relative clause, appositive clause, connected clause and a nominal clause. The relative clause was divided into SU (Subjective), DO (Direct Object), IO (Indirect Object) and OBL (Oblique), and were subsequently compared with the accessibility hierarchy (AH) of Keenan & Comrie (1977). As a result of the relative clause, it showed the same order in a productive ability for the relative clause as only a SU. The students have produced few data in the appositive clause, but the complete complement and the incomplete complement co-occurred in this case. In the case of the connected clause, few data have been conducted. And a result of the normal relative clause, it showed that the students have produced the most of these examples. It means that the overseas students can use the normal relative clause more easily than the other clauses.

Key Word : relative clauses, relative clause, relativisation, Korean language,
Korean education

최보선

소속 : 영남대학교 국제학부 강사

전자우편 : boseonlove@gmail.com

이 논문은 2018년 01월 25일 투고되어
2018년 03월 0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8년 03월 09일 게재 확정됨.